

길잃은 도로명주소... 시·도민 65% “우리 집 새 주소 몰라요”

‘동’ ‘번지’ 대신 ‘XX로 00번길’로 바뀌 새해부터 전면 시행



사진으로 보이는 '동구 충장로 58번길'은 '동구 충장로4가'와 같은 지역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주소'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자체 10억원 예산 들여 3년간 홍보... 효과 없어 일부 표지판 등 훼손 심각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제도가 전면 시행되지만 낯설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시행 초기 극심한 혼선과 불편이 우려된다. 지난 1997년 사업 착수 이래 2010년까지 투입한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판 설치·홍보 비용만 전국적으로 3600억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미흡해 제도 전면 시행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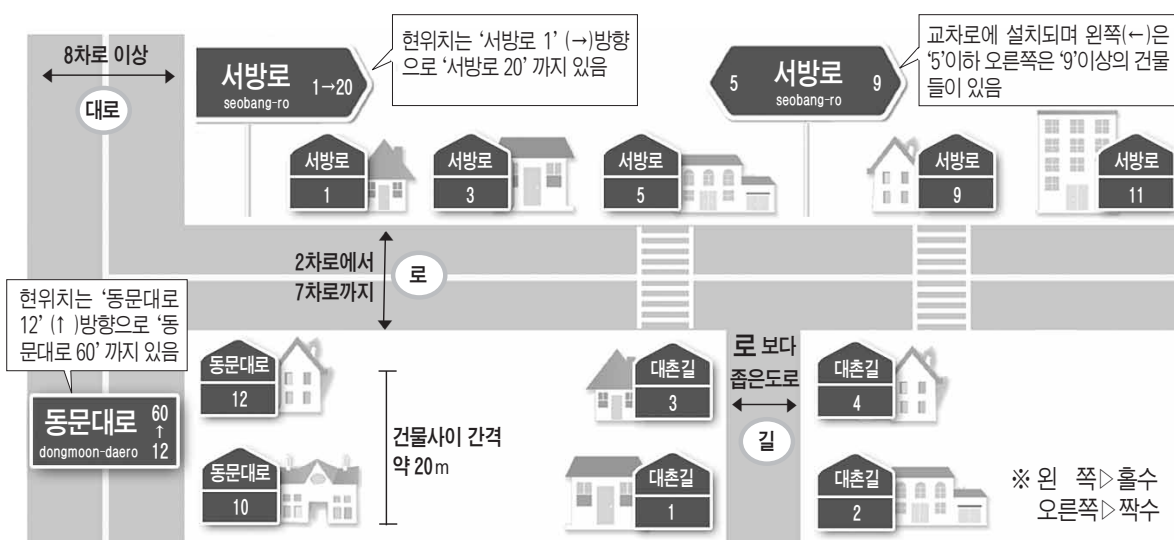
◇이미 설치된 도로명판·건물번호판도 부실=내년 1월 1일부터는 '방의 번호'인 지번이 아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된 도로명 주소만이 법적으로 유일한 주소로 인정된다.

이미 도로명판 등 시설물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지난 2010년 10월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이다.

하지만 설치된 명판 자체도 잘못돼 혼선을 주는가 하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명 주소로 찾아가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광주시 광전동 신세계 백화점 일대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경우 신세계백화점~버들교 간 도로를 일컫는 도로명 주소 '무진대로'와 동문교가~농성교차로 간 죽봉대로 명판이 한 때 뒤바뀌기도 했다.

■ 새 도로명 주소 식별법



새로운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했다. 도로 쪽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하고 건물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했다. 이를테면 '서방로 1~20'의 표기는 서방로(구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1번 건물부터 20번 건물이 있다는 의미다.

농성역 ~백운교차로 간 '대남대로' 명판은 가로수, 신호 제거에 가려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그나마 명판 설치 위치·높이도 통일성 없이 제각각이라 지적받게 느껴질 정도다.

설치된 뒤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총장·금남로 일대 '건물주소 명판'은 닳아져 확인하기 쉽지 않고 리모델링한 건물 명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라면 외국처럼 '애버뉴'(Avenue)나 '스트리트'(Street) 번호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접어야 할 형편이다.

골목이 많은 주택가는 더하다. 예컨대 '대남대로 283번길 10-12'와 '군부로 24번길 12-11'는 전혀 다른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지만 위치상으로

는 서로 붙어있다. 하지만, 이 동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로명판'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홍보비로만 100억 넘게 썼는데 '그대로'?=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 착수 뒤 2010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에 쓴 홍보비는 93억8000만원.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억8000만원, 전남도는 5억 4000만 원을 홍보비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축제·행사장 등에서 홍보물로 나눠주는 '일회성' 홍보에 머물면서 여전히 '자기 집 주소'도 모르는 시민들이 부지기수다.

전남지방우정청도 올 들어 지난 7

월까지 처리한 우편물 중 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경우는 1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장, 20여일 뒤면 기존 지번 주소로는 택배·편지를 보내지 못하지만 워낙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탓에 전남지방우정청은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당분간 지번 주소로도 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정도다.

급기야 정부는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 자치단체에 '도로명주소 홍보 전단지' 제작비용을 지원하며 홍보에 나섰지만 자치단체는 "우편 발송 비용이 없다"면서 각 세대를 돌며 나눠주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4원침 (9030) 김장두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 무죄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영철(59) 전 해남부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허 전 부군수는 지난 2009년 3억 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 김모씨에게 매입하면서 대출금 2억 2000만원은 김씨가 대신 갚는다는 약정을 체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징형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번이 무죄를 확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채동욱 정보유출’ 청와대 행정관 연루

검찰, 진술 확보... 소환조사 검토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흔 외자녀'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게 채 전 총장의 흔외자로 지목된 채 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리로 현재 (의

대해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으나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진행중이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정계전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겨 2010~2011년 대통령실 시설관리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총무비서관실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조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 3인방'으로 불리는 최측근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연합수

장애인 죽음 부른 휴대폰 요금폭탄 광산경찰, 보이스포싱범 수사 착수

광주광산경찰청은 2일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해 보이스포싱 용의자로 몰리고 수백만원의 요금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58·뇌병변장애 3급)씨 사건(광주일보 11월29일자 6면)과 관련,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자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A씨가 지난해 6월 모르는 사람에게 한 대당 10만원씩 받고 휴대전화 4개를 개통해 준 뒤 두 달동안 부과된 870만원의 요금 납부를 독촉받고 괴로워 했다는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통신사 협조

檢, 홍익식 화순군수 5년 구형 홍군수는 공소사실 부인 광주지법 30일 선고공판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용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익식 화순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8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홍 군수는 공소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이 업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에는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절도 신고-잡고보니 범인은 아들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가 자신의 집에 있던 스마트TV·컴퓨터 등을 내다팔았던 형범상 '친족상도례'에 의해 간신히 처벌은 모면.

○2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김모(21)씨는 지난 10월23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B아파트 자신의 자택 거실에 있던 스마트TV와 컴퓨터 등 3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고물상 등에 팔았다는 것.

○경찰은 "김씨의 아버지(48)가 아들이 훔친지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친족간 절도 등의 범죄는 성립이 안된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헬로tv 사은대축제

헬로tv에서 마련한 즐거운 이벤트! 모두가 부러워할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1. 결합상품 맞춤형 제안: 국내 최고 디지털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를 국내 최저 요금으로!

디지털tv	인터넷	전화
국내 최대 채널 보유 N+1 디지털 케이블 방송	국내 최고 가입 속도 초고속 인터넷 망	최저 요금으로 그대, 마음은 절한 저렴한 인터넷
월 8,000원 (VAT 포함 8,800원)	월 10,500원 (VAT 포함 11,550원)	월 2,000원 (VAT 포함 2,200원)

2. 헬로tv 미니팩: 고객님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원하는 채널만 구독하세요!

상품명	상품설명	주요채널	가격
골프/스포츠팩	골프계를 비롯한 골프정보가 가득한 골프팩	SBS Golf, JT Golf	3,000원 (VAT 포함 3,300원)
다큐팩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큐팩	NBC ADVENTURE, Discovery	~3,000원 (2,000원/채널) (VAT 포함 2,200원)
오락팩	최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오락팩	SBS, MBC, KBS2	~3,000원 (2,000원/채널) (VAT 포함 2,200원)
키즈팩	영 유아 어린이 대상의 키즈팩	KBS 3kids, Disney Junior	~3,000원 (2,000원/채널) (VAT 포함 2,200원)
취미팩	바둑채널이 포함된 취미팩	바둑TV, Arirang	~3,000원 (2,000원/채널) (VAT 포함 2,200원)

가입문의 **1855-1008** www.cjhellotv.com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